

[로스쿨 소식]

尹 ‘온라인·야간 로스쿨’ 공약에 우려 쏟아진 이유



〈2020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교육·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온라인·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공약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 전 지사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약속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

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로스쿨에 갈 필요 없이 실력으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대선 당시 약속했다. 반면에 윤 당선인의 온라인·야간 로스쿨 공약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3040 직장인들을 겨냥한 공약이었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로스쿨 정원 문제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로스쿨이 생긴다면 변호사 시험 경쟁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진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그치는 상황에서 로스쿨이 추가로 생기면 합격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해 1700명 수준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나오고 있으나, 변호사 업계는 현재도 지나치게 많다며 한해 1000~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야간을 도입할 경우 '로스쿨 양극화'에 끼칠 영향도 문제다. 평균 합격률은 비록 50%이나, 서울 소재 명문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은 향후 학생 모집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 로스쿨은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지방인재 선발 의무에서 찾고 있다.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서울보다 학생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지방대 육성법 시행으로 지방 로스쿨은 지역 내 학부 졸업자들을 20% 이상 입학시켜야 한다. 지역 인재의 개념을 지역 내 학부 졸업자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생긴다면 지방 로스쿨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과연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3040세대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지도 의문이다. 벌써부터 만약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생긴다면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법원·경찰 공무원 등 관련 직종 전문직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결국 합격률이 중요한데, 새롭게 법학을 배우려는 학생보다는 이미 비슷한 공부를 하고 실무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에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로스쿨의 경우는 다양한 직장 경력을 가진 지원자보다 학부 때부터 로스쿨 입시에 전념한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주간조선)